

교원 10명중 6명 이상 정기인사 “만족” 응답

전북교육청, 3월 1일자 정기인사 만족도 조사
3400명 중 67.2%… 전년비 4.6%포인트 상승

전북도교육청 소속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10명 중 6명 이상은 지난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공립 유·초·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3,4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3월 1일자 정기인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67.2%가 만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우만족 32.3%, 만족 34.8%다. 이는 전년도 만족 응답 62.0%에 비해 4.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보통은 23.6%, 불만족은 9.2%다. 학교급별 만족 응답을 살펴보면 유

치원 74.4%, 초등 68.2%, 중등 64.0%로 전년대비 각각 3.0%, 4.1%, 4.9%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인사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직위에 따른 만족 비율은 교육전문직원 78.1%, 교(원)장 77.9%, 수석교사 76.6%, 교(원)감 74.0%, 교사 65.2% 순이었으며, 교과별 만족 비율은 사서 76.5%, 보건 75.4%, 일반교과 68.3%, 특수 58.4%, 영양 57.1%, 진로진학상담 46.2%, 전문상담 33.3% 순이다.

인사 청렴성을 묻는 질문에는 46.8% 가 매우만족, 32.2%는 만족, 16.2%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불만족은 3.0%

매우불만족은 1.74%로 소수에 불과했다.

또 서열별 반영 만족도는 만족 75.6%, 불만족 6.7%, 보직 및 임지 배정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72.3%, 불만족 6.3%로 집계됐다.

이밖에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교육전문직원 선발시 자격요건 강화 △대규모학교 기피현상에 대한 정책 마련 △인사정책 변경시 다양한 채널 통한 홍보 △중등 도서벽지교사 선발 제도 개선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의견은 단기개선이 가능한 의제와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의제 등으로 나눠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교육공동체로부터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비대면수업 원칙… 참관실습 2학기로

전주교대, 1학기 학사일정 정비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는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주교대는 그간 3차례 총학생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학과장회의 등을 통해 1학기 학사일정을 최종 결정했다. 먼저 수업방식은 비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실험실습 등 대면수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목에 대해서 부분적 대면수업을 허용하기로 했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및 감염예방을 위해 1학년 참관실습은 2학기로 연기했다.

임용고시가 있는 4학년 학생들의 실무실습은 온라인 강의를 통한 간접실습(6월 1일부터 7월 10일)과 학교현장에서 체험하는 직접실습(6월 15일부터 28일)을 병행하도록 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대, 오늘부터 학습도서관 부분개방

‘사이 띄워 앉기’ 유도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는 25일부터 학습도서관을 개방, 부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전주교대는 코로나19 지역감염을 방지하고자 2월 25일부터 도서관 휴관을 실시했지만, 임용고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학년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도서관은 1열탐색(50석), 2열탐색(32석)을 4학년 위주로 운영키로 했으며, 짹수 좌석만 배정함으로써 ‘사이 띄워 앉기’를 유도했다.

부분 운영은 25일부터 시작될 예정

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 까지로, 기준 28시보다 단축운영하고,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도서관 출입 시 열탐설 이용대장 기입을 의무화하고, 발열체크를 통해 ‘붉은스티커’ 부착과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들만 이용하도록 했다.

김우영 총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주이에 따라 열탐설 운영을 중단 할 수 있다”며, “이제 진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1~3학년 학생들과 외부인의 이용을 최대한 제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공·사립 교원 명퇴 신청 접수

전북교육청은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간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2020년 8월 31일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한다.

다면,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징계처분이 요구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은 수사기관에서 비워조사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교육청은 예산·교원수급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규모를 결정하고, 7월 중에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말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손씻기



마스크착용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김우영 총장은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비대면 심리검사에 관심을 가져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은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이번 비대면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리검사는 5월 11일~20일까지 진행된다. 재학생 100여명이 신청해 비대면 심리검사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학생들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최근 상황과 관련해 미처 알지 못했던 변화된 심리부분을 깨닫게 됐다”며, “전문적 심리검사를 학교 측에서 제공해 줘 매우 민족스럽다”고 답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흥순직)는 22일 SMK 과천 본사에서 SMK INTERNATIONAL CO., LTD (대표 김성민)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비전대-SMK, 해외취업 협약 체결

우수 인재 선발 채용 · 글로벌 취업 연계 협력

학생의 취업을 100% 담보할 수 없다”며 “전주비전대학교 국제교류원

이 이룬 그간 해외취업의 노하우를 글로벌 기업인 SMK와 함께 지속 발전시키면서 학생들이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 취업에 성공할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MK INTERNATIONAL은 셔츠 단일 품목이지만,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시장에서는 고급 브랜드로 각광받는 글로벌 무역 기업으로서 2015년 자체 브랜드 ‘해리켄트’와 ‘비지노’를 런칭해 국내와 미얀마 의류 시장을 접종 공략하고 있다.

또한 현재 미얀마 3개 공장을 가동하면서 월 60~70만장의 외이셔츠를 생산해 연간 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직원의 규모는 전주비전대 졸업생인 룰다우(미얀마, 2020.2 졸업)씨를 포함해 3천6백명에 이른다

/정은성 기자